

4» 소프트웨어 단과대학 설립, 눈가리고 아웅?



6» 빅문 일부 개선 ... 여전히 남은 문제도

PROBLEM	SOLUTION
평가방식	통일된 강의지표, 구글드라이브 활용 업로드
팀타칭	강의진행방식 보완, 강의평가 문제 여전
출결방식	U-Class, 구글 설문 거쳐 결국 호형식으로

8» 국제캠 청소노동자 간접고용의 폐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가 임상교수인건비를 학교 운영비로 속였다며 법인이 제대로 학교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13일 청운관 앞에서 경희법인에게 학교운영비 160억을 지급하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이수형 기자)

“병원 돈을 왜 법인 통해서 주냐” 총학, 160억 다시 달라며 법인 ‘비난’

법인전입금 스캔들, 사실은?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학교가 회계감사에서 160억 위반금액을 적발당했다’고 전하며 ‘경희학원이 학교에 160억 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처럼 속여왔다’고 비난했다. 학교를 떠들썩하게 한 이 내용은 사람대병원이 법적으로 해당 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들의 월급을 주게 돼 있는데, 경희의료원이 학교에 직접 이 돈을 전달하지 않고 법인에 전달한 후, 법인이 학교에 이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총학은 이를 ‘불필요하게 법인을 거쳐 *부속병원전입금을 학교에 준 것은 법인전입금을 부풀리려는 술

수’라고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비리’, ‘(160억 원을)해먹었다’, ‘불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키웠다. 동시에 경희학원이 학교예산의 단 0.2%인 10억 원만을 책임지고 있다며 법인전입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이 제기한 이 ‘회계비리 스캔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총학이 ‘경희학원이 160억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면 교양강의 6,400개를 열 수 있었다’며 ‘160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상 실책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상 이동을 ‘편법지출’로 표현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160억, 정확히는 161억을 의료원으로부터 학교에 전달한 경로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법인이 이 돈만큼의 지원을 더 해

줘야만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160억 원의 위법성과 횡령가능성

다만, 총학이 문제제기 한 160억의 움직임은 사실이다. 경희학원은 의과대학 임상교수 월급의 절반을 법인회계를 거쳐 학교회계에 전입시켜왔다. 이는 교육부의 회계처리 지침과 다른 것이 맞으며 교육부 감사관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회계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지난해 경희학원이 학교에 준 전입금은 173억이고, 이 중 경희의료원이 경희학원에 준 전입금은 161억 원이다. 법인이 법외기부금로 줘야하는 돈이 아닌데도 학교에 지원한 *경상비전입금은 12억 원 정도다. ‘왜 임상교원 월급 절반이 법인을 거치게 하는가’하는

질문에 경희학원 측은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이라고 답변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회계감사를 진행한 대주 회계법인 측은 “회계비리라곤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회계를 간접하게 하라는 권고일 뿐, 160억 원에 관한 지적사항은 전입금 부풀리기나 비리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경희학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경희학원 관계자는 “부속병원전입금 322억 원 중 절반을 법인을 통해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지적사항은 회계를 간접하게 하라는 지시일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전했다. 또한 “이미 해당 지적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사다리 배차 서비스 개발
김인수(유전공학 2011) 대표



창업현장 실습이 가져다 준 사다리차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 이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옮길 때 사다리차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7월, 사다리차 배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앱) ‘사다리룩’이 등장했다. 사다리룩 개발자 김인수(유전공학 2011) 대표와 한석우(건축학 2011) 학생, 안현주(우주과학 2016) 학생을 만났다.

창업, 많은 대학생들이 꿈꾸는 일이다. “제가 만든 서비스가 유통되는 것,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창업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김인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선택한 사다리차 아르바이트 경험이 사다리룩 개발의 시작점이 됐다. “알바를 하면서 사다리차 시장이 너무 열악한 것을 느꼈다”는 김 대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업 캠프와 창업 관련 수업을 들은 뒤 창업에 매력을 느낀 김 대표는 본격적으로 사다리차 배차 서비스를 고안했다.

지난 학기 초, 김 대표 혼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서를 짰다. 일이 진행될수록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 대표는 안현주 씨와 임수현(산업디자인학 2013) 씨를 불렀다. 서비스의 이름을 ‘사다리룩’으로 결정하고, 사업 기획서를 ‘SK 청년비상프로그램’에 내밀었다. 총 50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당당히 최종평가에 들어 총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팀을 나간 임 씨의 자리를 한 씨가 대신하게 되고 지난 7월, 사다리룩 앱을 정식으로 시장에 내놨다.

한 씨는 “아, 난 창업이나 해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는 창업을 말리고 싶다”며 “창업은 준비되어 있어야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다리룩의 원활한 창업은 그들의 많은 노력에 우리학교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김 대표는 “학교에 창업 관련 지원이 매우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대표적인 것이 창업 현장 실습 제도였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2015년부터 창업 현장 실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개인 혹은 단체로 창업 계획을 제출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심사 통과하면 지식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에 관한 교육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창업 보고서까지 통과되면 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창업에 성공하면 창업보육 센터에서 사무실을 제공한다. 그리고 김 대표는 심사에 통과해 15학점을 취득한 첫 사례다.

김 대표는 지금의 사다리룩을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창업 현장 실습 제도라고 말한다. 이 제도가 없었으면 창업이란 일을 일찍이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금으로 창업의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 학교 창업 교육의 결과가 외부 공모전과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 대표는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하는 많은 창업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또한 김 대표는 “제가 창업 현장 실습의 첫 사례이니 만큼 힘든 점이 많았지만 저희의 창업이 좋은 선례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김인수 대표와 한석우 학생, 안현주 학생 그리고 사다리룩의 앞날을 응원한다.

학사 규정 개정으로 수업일수의 절반까지 출석 인정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우리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출석인정사유에 따른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규정이 지난 1일 개정됐다. 기존에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유 즉, ‘공결 사유’로 인해 해당 학생이 출석을 못한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2 기간 내에서 출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결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수업일수의 2분의 1로 축소 제한됐다.

단,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출석인정일수의 제한에서 제외되며, 교

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취업자와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에 대한 근거 또한 추가 됐다. 각각 12조 1항 7호와 8호를 추가하여 ‘졸업예정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와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를 출석인정 사유로 명시했다. 그간 별도의 시행 세칙이 제정돼 운영돼 오던 것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항으로 이전된 것이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에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공결 사유더라도 수업에 절반 이상

을 결석했는데 성적인정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공결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일수를 포함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 학사지원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사유가 추가된 데에 학사지원과 측은 “교육부에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안내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추가

한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도 휴강 시 학생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 휴강 시 보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휴강 시 학생에게 미리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학생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학점취득방법 중 대학원 교과목 수강도 학점 인정된다는 내용이 추가 됐다. 마지막으로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에는 성적 정정을 할 수 없으나, 학생의 과실이 아닌 경우 부총장의 허가가 있을 시 성적 정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 7면

